

#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총력'

### 총 400억 투입...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58만㎡ 부지 지방소멸 대응·정원 기반 생활 인프라 구축...탄소중립 연계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해양 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정원의 개념을 도시 전체로 확장한 새로운 도시건설의 패러다임으로, 지역과 도시의 개성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자연·문화·도시 경관이 정원이 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해남군은 최근 서남해안 생태정원도

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거점 도시에 생태정원도시를 조성해 정주여건의 개선과 관광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시는 대통령 지역 공약 및 산림청 국정과제에 반영돼 1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부터 5년간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00억 원이 투입된다.



솔라시도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감도.

(해남군 제공)

이와 관련 해남군은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정원을 기반으

로 한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에 집중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58만㎡에 조성될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시는 랜드마크가 될 진입 관문으로서 서남해 상징정원, 활동성을 강조한 영암호 수변정원, 생태경관을 담은 도시와 자연의 연결부가 될 금호호 생태정원, 산자락과 숲을 도심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구성리 숲정원, 그린 인프라가 접목된 가로숲정원의 공간 계획이 포함돼 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영향에 대응한 탄소중립, 스마트 등 개념을 연계해 생태도시, 환경도시, 도시숲, 정원길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올해 개장한 산이정원을 비롯해 9개의 민간정원도 조성되고 있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과 맞물려 도로 10분 이내로 어디든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와 서남해안 관광활성화의 기반이 될 생태정원도시의 의미 있는 첫 발을 떼게 됐다"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원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업도시 개발과 발맞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목포 유달산 유선각, 단청 훼손 수년째 방치 '눈살'

### 단청 색 벗겨지고 일부 철근 노출 등 박락 현상 시 관계자 "내년도 본예산에 보수 예산 반영 검토"

목포시 유달산의 유선각 단청이 훼손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유달산 유선각 단청이 훼손돼 담당 부서에서 2025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선각은 목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달산 관광코스의 하나로 목포 시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지만, 제때 보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단청 색이 벗겨지면서 일부는 내부 철근 구

조물까지 노출돼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유선각 단청공사 5천만원, 2023년 공원내 전통정자 단청공사(유선각 외 3개소) 1억5천만원, 2024년 유선각 보수 및 단청공사 5천만원, 2025년 유선각 외 1개소 보수·단청 6천만원 등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목포시 자체 예산안에서 누락됐다.

시민 A씨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우선 순위를 따져 편성돼야 하는데 목포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달산

에 있는 유선각 보수 예산은 수년째 예산 편성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며 "동단위 축제, 치적 홍보 플래카드, 바람개비 설치 등에 대한 예산 집행보다는 관광객들이 찾는 유달산 유선각 단청 보수, 요철이 심한 보도블럭 정비 등 편성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한 시민 B씨는 지난 5일 목포시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소통신문고에 '유달산 유선각 보수문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유선각 보수와 안전문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B씨는 "은동검 목포 경관을 보기 위해 유달산 유선각을 방문하게 됐는데 예전과 달리 곳곳이 훼손돼 완전 다른 모습"이라며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얼굴을 보기가 민망할 따름이었다"고 지적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이러 "유선각에 새겨진 그림은 얼마나 보수를 안 했으면 어떤 그림이 새겨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둥 위에는 금이 가는 것이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목포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많다"고 우려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유선각 천정 등의 시멘트 떨어짐 등은 안전을 위해 끊어내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며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유선각 단청 보수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5개 업체의 목은지를 돼지머릿고기, 두부와 곁들여 제공한 무료 시식회에는 1천여명이 넘게 방문하며 호평을 받았다.

부산 금정구에서 온 관람객은 "강진 목은지 특유의 깊고 풍부한 맛에 반했



목포 유달산 유선각 단청이 수년째 방치된 채 색이 벗겨지고 내부 철근 구조물까지 노출(오른쪽)돼 보수가 시급하다.



# '전국 최대 대파 주산지' 신안군, 스마트 관수 기술 도입

### 최적 관수량·공급시간 자동 물 공급...농가 소득 향상 기대

신안군이 2025년도 '노지 스마트 기술 융합형 실증모델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 대파 재배에 스마트 관수 기술을 도입한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약 100ha 규모의 대파 재배지에 최적의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스마트 생력화 모델'이란 모델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군의 대표적 소득 품목 중 하나인 대파의 안정적 생산 환경 구축과 품질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장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에 도입되는 스마트 관수 기술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토양

수분 함수율, 증발산량, 생육 지수를 시스템으로 파악, 최적의 관수량과 공급 시간을 자동으로 산정해 물을 공급하는 기술이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대파는 5월 노지에 정식해 다음 해 봄까지 출하하는

장기 재배 작물로 군은 전국 최대 주산 단지로 자리 잡고 있다.

신안군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1.8ha에서 ICT 기반의 관수 및 관비 자동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구축해 왔으며 사업 이후 데이터 수집을 활용하는 농가를 약 6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시스템은 대파의 안정적 생산과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효과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 영암, 황토고구마 수확 한창... "토사유출 피해 최소화"

### 고구마 농가 협치 환경개선

영암군 곳곳 들녘에서 막바지 황토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가을 수확해 저온숙성 과정을 거친 영암 황토고구마는 달달한 맛과 향, 게르마늄·칼륨 등 건강을 뒷받침하는 성분으로 겨울을 풍성하게 만드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영암 들녘 황토고구마 수확이 순조로운 이유는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던 민원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 황토

고구마 밭은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과 함께 흙이 쓸려 내려가 가까운 논과 밭 등 농경지에 해마다 반복된 피해를 입혀왔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는 그 규모가 커 토사유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해마다 민원을 제기하며, 영암군에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올해 3월 기준 영암군 전체 고구마 재배면적 1천354ha의 12%가량에 해당하는 319필지 1146ha에서 삼습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영암군은 황토고구마의 명성을 생산

과정에서부터 단단히 다지기 위해 올해 초부터 토사유출 피해 최소화 조치에 나섰다. 먼저 2·4·9월 3차례 '고구마 재배 농가 간담회'를 열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배 의무사항 안내에 나섰다.

3월부터는 '삼습 토사유출 대상지 정비'에 나서 집중호우 시 배수용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에 나섰다. 그 조치의 하나로 덕진·신북·시종·도포면 농업기반법에 일상경비를 교부해 지난해 토사유출이 심했던 곳을 중심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내 입맛에 딱" 강진 1년 숙성 목은지 '호평'

### 목은지 향아리 개봉식 '이목 집중'...목은지 475kg 판매고

강진만 촛추는 갈대축제에서 진행된 이색적인 목은지 시식·판매 행사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강진목은지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신규 소비자를 확보해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행사로 진행됐다.

강진만 촛추는 갈대축제 주무대에서 진행된 전국 최초 강진목은지 향아리 개봉식과 시식·판매 행사는 관광객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지역 특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목은지 산업 중심지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5개 업체의 목은지를 돼지머릿고기, 두부와 곁들여 제공한 무료 시식회에는 1천여명이 넘게 방문하며 호평을 받았다.

부산 금정구에서 온 관람객은 "강진 목은지 특유의 깊고 풍부한 맛에 반했

다"고 웃음을 지었다.

강진군은 시식을 마치고 입맛에 맞는 목은지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강진에서 생산된 쌀귀리 사은품을 증정, 목은지뿐만 아니라 쌀귀리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시식·판매 행사의 실시간 생중계를 위해 파워 유튜브 '후다닥요리' 채널이 행사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현장에서 강진목은지 475kg을 판매, 456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강진목은지와 쌀귀리를 동시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며 "강진목은지 산업 생태계를 확대 구축해 대량 생산과 유통을 통한 소득증대를 달성하고 귀촌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 나주시, 명인·명장 4인 합동 기획전

### 11-22일 나주문예회관 전시실 '거장의 시선을 잇-多' 주제

나주시는 7일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명인·명장 합동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거장의 시선을 잇-多(다)'라는 주제로 사진 정중관, 도예 노근진, 한국화 장복수, 서양화 신호재 등 명인·명장 4인의 분야별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2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해오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서 온 예술가들의 장인정신과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로 기대를 모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나주의 명인·명장 예술가들의 합동 기획전을 갖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공연,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 김산 무안군수, 내년 국비 확보 '동분서주'

### 국회 예산안 심사 시기 방문...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 등 건의

김산 무안군수가 2025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7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김산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무안군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67주 4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 시기에 맞춰 지역 현안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빨라지게 추진됐다.

이날 건의한 주요 국고 사업은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총사업비 350억원) ▲무안 봉대산성정밀 발굴조사(총사업비 100억원) ▲구

로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총사업비 47억원) 등이다.

시급히 사업 추진이 필요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위험 교량 보수보강공사(총사업비 9억6천만원) ▲삼향읍 군도37호선 남악I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총사업비 7억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개선사업(총사업비 19억4천만원)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산 군수는 "올해 정부의 교부세 삭감으로 무안군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소돼 군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